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트로피모스, 성 사바티오스, 성 도리메돈 순교자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주일

성 니키타스 대순교자

제4조, 조과복음 2 / 조과에서 십자가 현양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십자가 현양 축일 찬양송 / 191. B 221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 191. B 223

. 사도경: 갈라디아 2,16-20 / 196. 봉독서 295

. 복음경: 마르코 8,34-9,1 / 197. B 9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트로피모스, 성 사바티오스, 성 도리메돈 순교자

우리 교회는 9월 19일을 성 트로피모스, 성 사바티오스, 성 도리메돈 순교자(3세기)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그 당시 도리메돈은 지역의 잘 알려진 높은 위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순교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순교자들의 인내와 용기에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시중들 수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박해 시대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들이 순교자들을 방문하였다가 성인들의 용기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에 경탄하여 순교자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첫 박해 시대의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고, 그때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거룩한 뼈를 땅에 뿌렸고, 거룩한 피로 믿음의 나무를 키워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며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죽음은 죄로 인해 오게 되었지만,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이 없이 영원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악을 알게 되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영원한 지상의 낙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미리 예견하시어 영적 낙원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다.

영적 낙원의 길로 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적인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적 낙원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서도 사탄의 그늘에서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던 죄의 짐을 각자 짊어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셨다. 그 길은 주님께서도 고통스럽게 가셨듯이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 '천국의 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키레네 사람 유다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은 주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각자 직접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 주님 부르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로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하셨다. 행실로 가르치자는 율해 대교구의 지침대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만이 신량을 맞이하여 함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만 장황하게 하고 포장이나 하는 사람들은 성 야고보가 말씀하셨듯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말재주로 또는 알팍한 세상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마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인으로 포장하는 위선자와 같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삶을 더불어 공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들과 다른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그들도 본받고 구원의 길로 따라 나아올 수 있는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그에 예속되면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각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익중 신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걱정하라

우리가 어떤 것을 걱정해야 하는지 알도록 가르쳐주는 위대한 지혜가 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이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어떤 지혜로운 영적 원로가 말했다.:

1.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갈지는 조절할 수 있다.
2. 당신의 얼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은 바꿀 수 있다.
3.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당신 마음 속의 날씨, 곧 당신을 둘러싼 도덕적 분위기는 조절할 수 있다.
4. 이미 자란 당신의 키는 조절할 수 없지만, 당신 머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깊이와 수준은 조절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의 잘못은 조절할 수 없지만, 당신 스스로 화내고 짜증내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직시할 수는 있다.
6. 당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을 왜 걱정하는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고, 당신에게 달린 일들을 왜 부지런히 하려하지 않는가?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일 수호성인 축일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일 예배가 거행될 것입니다. 각 지역 성당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축일 준비를 위해 꼭 수도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벌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 묘지 관리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는행 077-041887-01-103 / 예금주 :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가을 바자회

오는 10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영원이 기억하시리이다

9월 21일 토요일 대만과 후 고 콘스탄티노스 구재식 교우의 40일 추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고인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간 예식

· 9월 17일(화) > 성 소피아와 그녀의 딸들, 삐스피·엘베다·아가베 순교자 축일
오전 9시: 축일 조과, 성찬예배

